

『京畿道邑誌』해설

제 三책

一. 『驪州牧邑誌』(奎一七三六八)

『輿地圖書』의 「여주읍지」와 대부분 동일하다. 다만 첫머리에 읍지도가 없다는 점, 일부 서원과 배향인물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 정도가 다를 뿐이다. 『京畿誌』의 「여주읍지」는 첫머리에 읍지도가 달려 있는 것을 빼고는 이 읍지와 동일하다.

二. 『驪州邑誌』(奎一〇七一〇)

一八九九년경에 만들어진 여주읍지. 구래의 항목들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戶摠、還摠 등의 항목이 없다. 그러나 一九세기 후반 이후 편찬 당시까지의 사정이 일부 항목에 반영되어 있다. 結摠항목에는 一八九四년의 갑오개혁 당시 陞摠된 결수, 一八九七년과 一八九八년의 변동사항 등이 파악되어 있고, 校院 항목에는 一八七一년의 서원철폐령에 따른 일부 서원의 폐지 사실이 반영되어 있다. 또 公廨에는 衙舍와 鄉長處所가 一八九六년 겨울에 파괴된 사실, 大同庫가 一八九七년에 불탄 사실이 실려 있다.

三. 『漣川郡邑誌』(奎一〇七三六)

연천군수 宋敬仁이 一八九九년에 작성해 올린 읍지. 일반적인 항목과 내용은 위 『漣川縣邑誌』(奎一七三七一)와 거의 같으나, 仕蹟 항목이 제외되었다. 또 진공 등 폐지되어 불필요한 항목은 아예 삭제되어 있으며, 호수, 전결, 호포전, 사환미, 관항 등 一八九九년 당시 연천군의 사회경제적 실태가 파악되어 있다.

四. 『漣川縣邑誌』(奎一七三七一)

『輿地圖書』의 항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塚墓、人物 등의 항목이 상대적으로 자세하다. 畵田、水田、田稅、大同、均役、結錢、糶糴 등의 항목에는 一八세기 전반기의 상황이 상세하게 파악되어 있다. 읍지도가 수록되어 있지 않은 점을 빼고는 一八四二—一八四三年에 편찬된 『京畿誌』의 「연천읍지」와 동일하다.

五. 『永平郡邑誌』(奎一〇七二二)

一八九九년 영평군에서 만들어 올린 읍지. 지방제도 개혁 이후의 읍지이지만 그 변화된 양상은 전혀 파악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輿地圖書』의 항목과 편차에 입각해 있다. 畵田、水田、糶糴、田稅 등 사회경제적 지표는 물론 대부분의 편차와 내용이 一八七一년에 편찬된 『京畿邑誌』의 「영평읍지」와 동일하다. 읍지도의 묘사나 官職 항목의 官奴婢 수치가 다를 뿐이다. 그러나 위 사회경제적 지표들의 기준연도

인 임진년이 어느해를 말하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六. 『永平郡邑誌』(奎一七三六〇)

一八세기 전반의 영평군 사정이 반영되어 있는 읍지. 『輿地圖書』의 항목이나 편차와 유사한 체제로 되어 있으며, 樓亭題詠 人物 항목 등이 비교적 자세하다. 건치연혁 항목에는 一八三六년(헌종 二) 군으로 승격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田稅와 糶糴 항목에는 一八一六년의 사정이 반영되어 있다. 읍지도가 수록되어 있지 않은 점을 빼고는 一八四二—一八四三年에 편찬된 『京畿誌』의 「영평군지」와 동일하다.

七. 『龍仁郡誌』(古九一五·一二一 Y 八 g)

一八九九년경에 편찬된 읍지. 一八七一년에 편읍지찬된 『京畿邑誌』의 「용인읍지」와 유사하지만, 官職、官屬、壇廟、元戶、結摠、還摠 등에는 편찬 당시의 사정이 반영되어 있다. 官職과 官屬 항목에는 구래의 체제와 폐지 여부만에 그치지 않고 변화된 지방제도의 내용이 적혀 있다. 烽燧와 驛院이 一八九六년에 폐지된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八. 『龍仁縣邑誌』(奎一七三五七)

一九세기 전반의 사정을 보여주는 용인읍지. 인물항목의 孝子 蔡有天 戶 조에 보이는 「今上癸亥」는 一七四三年(영조 一九)을 표시하지만, 이는 영조대의 읍지가 전사되는 과정에서 오류이다. 戶摠、結

摠、軍摠 등 사회경제적 지표들에 간지가 표시되어 있지는 않은 점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京畿誌』의 「음죽읍지」와 동일하다.

九. 『龍仁縣邑誌成冊』(古九一五・一二一 Y八h)

一八九一년에 편찬된 용인읍지。읍지도를 포함하여 항목과 편차가 一八七一年에 편찬된 『京畿邑誌』의 「용인읍지」와 유사하다。호구 항목은 一八七一年의 수치가 전제되어 있으나, 軍器、結摠、軍摠、還摠、事例大槩 항목에는 편찬 당시의 사정이 반영되어 있다。

一〇. 『陰竹郡邑誌』(奎一〇七二四)

一八九九年 음죽군수 李秉德이 만들어 올린 읍지。지방행정체계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편집되어 있으나 소략한 편이다。戶口、田賦、軍額、還摠 등에 편찬 당시의 사정이 반영되어 있다。

一一. 『陰竹縣邑誌』(古九一五・一二一 Eu五七h)

一八九五년에 편찬된 음죽읍지。대부분의 항목과 편차는 물론 내용까지 一八四二年에 편찬된 『京畿誌』의 「음죽읍지」로부터 전제되어 있으나, 일부 항목이 생략되어 있다。다만 『京畿誌』의 「음죽읍지」에 기록되지 않았던 호구 항목이 각 리별로 상세하게 파악되어 있고 田賦 항목의 수치가 새롭게 조사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一一. 『陰竹縣邑誌』(奎一七三七〇)

一八四二년의 사정이 반영되어 있는 음죽읍지. 항목 자체는 『여지도서』 체제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편차가 다르고 선생안이 추가되어 있다. 戶口는 수치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田賦、軍摠 등에는 간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一八四二년에 편찬된 『京畿誌』의 「음죽읍지」와 완벽하게 동일하다.

一二. 『利川郡邑誌』(古九一五·一二一 I c 三 g)

一八九九년 이천군수 李彙德이 만들어 올린 읍지. 坊里에서 軍兵 항목까지는 대부분은 『輿地圖書』 체제에 따른 것이며, 말미에 붙어 있는 戶口(附坊里)에서 徭役까지가 그나마 추가된 부분이다. 건치연혁 항목에 보이는 「當佇」 元年丙申과 「乙巳」는 각각 一七七六년(정조 즉위년)、一七八五년(정조 九)을、공해 항목 奴房廳 조에 보이는 「今戊寅」은 一七八二년(정조 六)을 가리킨다. 이는 이 읍지가 정조때 만들어진 『이천읍지』의 수정본에 기초한 것임을 말해준다. 坊里(附戶口)、公廨、堤堰、樓亭、人物 항목에서는 『輿地圖書』 본에 비해 내용이 일부 추가되어 있다. 사회경제적 지표들의 수치는 『輿地圖書』 본과 다르지만、旱田、水田 항목의 원전답 규모가 『輿地圖書』 본과 거의 같은 것을 보면 이 지표들이 정조때의 것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간지 없이 표시된 호수와 남녀구수의 수치가 『호구총수』의 수치와 일치하는 것도 그러한 가능성을 높여준다. 坊里 항목에서 軍兵 항목까지는 一八七一년에 편찬된 『京畿邑誌』 본의 읍지 부분(읍사례 제외)과 동일하다.

一四. 『仁川府邑誌』(古九一五・一二一 In二b)

一八九〇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인천읍지. 凡例에 항목과 편차를 한결같이 『東國輿地勝覽』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소략한 편이지만, 塚墓、題詠、名宦 항목이 상대적으로 자세하다. 戶口、田賦 등 사회경제적 지표들은 간지가 적혀 있지 않다. 그러나 구래의 체계가 폐지된 사실(俸廩 항목)로부터 읍지가 一八九〇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기타 학교의 교원을 둔 사실(官職)、대원군대의 서원철폐령에 따른 학산서원의 폐지사실(校院) 등을 확인할 수 있다.

一五. 『仁川府邑誌』(奎一七三六二)

一九세기 전반의 사정이 반영되어 있는 인천읍지. 일부의 사회경제적 지표를 제외하고는 위 『仁川府邑誌(附地圖)』(古九一五・一二一 In二b)와 동일하다. 戶口 항목에는 경자년의 통계가 쓰여 있는데, 이는 一八四〇년(헌종 六)을 가리킨다. 읍지도가 없는 것을 빼고는 一八四二—一八四三年에 편찬된 『京畿誌』의 「인천읍지」와 완벽하게 동일하다.

一六. 『長湍郡邑誌』(奎一〇七三七)

一八九九年 장단군에서 만들어진 읍지이다. 그러나 앞선 읍지들인 『京畿誌』本이나 『京畿邑誌』本이 참고되지 못했음을 볼 수 있다. 福田、水田、大同、軍額 등 각종 사회경제적 지표들은 갑오개혁 이전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때의 사정이 반영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一七. 『長湍邑誌』(奎一七三六七)

一九세기 전반의 사정이 반영되어 있는 장단읍지. 참고할만한 구래의 읍지가 없어서 민간에 문의하고 『동국여지승람』을 참고하여 新編을 만들었다는 머릿글이 실려 있다. 정조때 읍의 일부가 개성으로 이속된 사실(移屬山川)、一八四〇년(헌종 六)에 현으로 강등된 사실(건치연혁)、같은 해 통계를 사용한 호구수(戶摠) 등을 통해 이 읍지에 반영된 시기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읍지도가 없는 것을 빼고는 一八四二—一八四三年에 편찬된 『京畿誌』의 「장단읍지」와 동일하다.

一八. 『積城郡邑誌』(奎一〇七一九)

一八九九年 적성군수 金泳鎭이 만들어 올린 읍지. 山川(附堤堰)、坊里、戶口、田賦(附社還)、壇廟、廨宇、市場、學校、驛、寺刹、職官(附官屬)、軍物、土產 등 지방 행정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만을 간추린 읍지이다. 戶口、田賦 등 사회경제적 지표를 통해 편찬 당시 적성의 형편을 볼 수 있다.

一九. 『積城縣邑誌』(奎一七三五六)

一九세기 전반기의 사정이 반영된 적성읍지. 疆域과 山川 등이 항목으로 나뉘어지지 않는 등 정돈이 덜 된 모습이다. 人物、古蹟、塚墓 항목이 특히 자세하다. 읍지도가 없는 것을 빼고는 一八四二—一八四三年에 편찬된 『京畿誌』의 「적성읍지」와 동일하다.

二〇. 『竹山郡邑誌』(奎一〇七二〇)

一八九九년 죽산부사 尹秉이 편찬해 올린 읍지. 지방행정에 필요한 항목들이 주로 수록되어 있다. 一八九四年에 승종된 결수(戶口)와 호포전(田賦) 등 갑오개혁 이후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고, 이전 사례들은 폐지 사실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二一. 『竹山府邑誌』(古九一五·一二一 J九三六b)

一八九一年에 편찬된 죽산읍지. 과거의 읍지를 토대로 하고, 그 위에 편찬 당시의 변화를 附記한 형태로 되어 있다. 一八면이 一四면으로 바뀐 것(面里), 역원의 관리가 이속된 것(驛村), 일부 제언이 폐지된 것(堤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二二. 『竹山邑誌』(奎一〇七三八)

一八三二년에 편찬된 죽산읍지로, 편찬 당시의 군현내 사정이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다. 첫째 리에는 경계가 표시된 군현지도가 실려 있는데, 일반적인 一九세기 읍지의 附圖들과는 다른 모습이다. 본문은 크게 建置沿革에서 俸廩에 이르는 전반부와 宦蹟에서 碑板에 이르는 후반부로 나뉘는데, 특히 후반부의 宦蹟、人物 항목이 자세하다. 전반부 가운데 戶口、田賦、旱田、水田、大同米 등 각종 사회경제적 지표들은 읍지 편찬 당시의 군현내 사정을 보여준다. 宦蹟 항목에는 一八三一年에 체임된 金榮秀까지 수록되어 있고, 科擧 항목에는 순조대 당대의 합격자 명단이 실려 있다. 전체적으로 一八四二—一八四三年

에 편찬된 『京畿誌』의 「적성읍지」와 동일하다.

二三. 『砥平郡邑誌與地圖』(奎一〇七一六)

一八九九年 지평군수 李載夏가 편찬해 올린 읍지. 읍지도를 포함하여 모든 내용이 『輿地圖書』의 「지평읍지」와 동일하다. 본문내 표제부의 지평현이 지평군으로 바뀐 것이 유일한 차이점이다. 당연히 편찬시기의 사정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二四. 『振威縣邑誌』(奎一七三六三)

一八四三年에 편찬된 진위읍지. 전통적인 항목으로부터 크게 벗어나 있지 않으며, 특히 古跡、人物 항목이 자세하다. 司倉과 鄉校가 각각 一八四一年、一八三八년에 改建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등 一九세기 전반의 지역 상황이 비교적 잘 반영되어 있다. 첫머리에 읍지도가 없는 것을 빼고는 一八四三年에 편찬된 『京畿邑誌』의 「진위읍지」와 동일하다.

二五. 『振威縣邑誌』(古九一五·一二一 J五六二e)

一八九一年에 편찬된 진위읍지. 이전의 읍지들이 참고되지 않았으며, 주로 편찬 당시의 군현 사정이나 사례가 중심이 되고 있다. 戶口는 각 면별로 파악되어 있으며, 堤堰 항목에는 새로이 출세하게 되었거나 폐지된 내역이 실려 있다. 田賦、還穀、軍兵 등의 전통적인 지표에서 그치지 않고, 軍器의 종류와 숫

자、植木 현황、官廩의 각종 형태、지경 내의 農洑 등 각종 현황이 상세히 파악되어 있다. 읍지의 첫머리에 거친 필치의 읍지도가 있고, 말미에는 별개의 읍지도가 추가되어 있다.

二六. 『京畿道振威郡邑誌與地圖成冊』(奎一〇七一四)

一八九九년 진위군수 金思弼이 만들어 올린 읍지. 四方道里、邑名古號、鎭管 등 일반적인 항목 뒤로 곧바로 戶總、結總、軍總 등이 실려 있다. 一八九五년에 隱結 조사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結總 항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읍지 편찬 시기의 사정과 무관하다.

二七. 『通津郡邑誌』(奎一〇七〇四)

一八九九년경에 편찬된 통진읍지. 二책으로 되어 있다. 建置沿革、公廨 뒤로 倉庫、鎭堡、烽燧、關隄、驛院、城池、島嶼 등이 이어져 있는데, 강화도를 마주보고 있는 군사적 요충지라는 점이 고려된 때 문인 듯하다. 鎭堡、烽燧、驛院、結錢、俸廩、軍兵 등에는 一八九〇년대의 변동 사실이 반영되어 있다. 二책에는 읍지도와 境界、面里、山川 항목이 들어 있다.

二八. 『坡州郡邑誌』(奎一〇七一一)

一八九九년에 파주군에서 편찬해 올린 읍지. 기존의 저본이 전제되지 않고 편찬 당시 새롭게 조사된 사항이 실려 있다. 읍지도 뒤로 客舍、鄕校、社稷、東軒、官屬數額、軍器庫、境內坊曲 등 관아 건물과 군

내 경계에 대한 설명이 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지표로는 結摠만이 실려 있을 뿐이다.

二九。『坡州牧邑誌』(奎一七三五八)

정조때 이후의 사정이 반영되어 있는 輿地圖書。『輿地圖書』 유형의 항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나, 편차가 다르게 되어 있다. 忠臣과 樓亭 등에는 원본에 수정을 가한 「新增」 부분이 있는데, 특히 대폭 증보된 樓亭 항목에는 정조 때의 문장들이 실려 있다. 이는 이 읍지가 정조 때 이전의 원본에 수정을 가하여 만들어진 것임을 말해 준다. 호구수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京畿誌』의 「과주읍지」와 동일하다.

三〇。『抱川郡邑誌』(奎一〇七三〇)

一八九九년 포천군수 李憲榮이 편찬해 올린 읍지。人物、孝子、烈女 항목등이 상대적으로 자세하다。舊誌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나, 建置沿革 항목에는 一八九五年 군제로 변화된 사실이、院祠 항목에는 대원군 때 서원이 철폐된 사실이 반영되어 있다. 기타 撥幕步撥、土産、寺刹 등에도 舊誌와 달라진 사항들이 수록되어 있으나, 正작 戶摠、結摠、軍摠 등은 모두 舊誌의 수치가 기록되어 있어서 편찬 당대의 현황을 확인하기 어렵다.

三一。『堅城誌』(古四七九〇—九)

一七五八년(영조 三八)에 李世郁이 편찬한 포천읍지。서문에 따르면 趙綱이 시도했던 포천읍지 편찬의

뜻을 이은 것이라 한다. 지역 출신 인물들을 수록하는데 중점을 두되, 이미 이름을 떨친 사람들보다는 忠孝、貞烈、奇偉、才俊의 인물들, 그리고 기이하고 탁월한 행적을 보인 이름없는 이들을 신분에 상관없이 수록하는 데 힘썼다 한다. 建置沿革、郡名、姓氏、縣界、九面程道、民戶田結軍額總數、山川、祠廟、烽燧、驛院、佛宇、古跡、名勝、堤堰、土產、橋梁 등 일반적인 읍지의 수록항목들이 간략하게 나열되어 있으나, 읍지의 중심적인 내용은 그 뒷부분이다. 서문의 취지 대로 名宦 항목은 간략한 반면, 人物、孝子、忠臣、忠奴、烈女、塚墓 등의 항목이 자세하다. 특히 인물 항목에서는 도교적 성향의 楊士彦을 비롯하여 다양한 행적의 인물들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三二. 『豐德郡邑誌』(奎一〇七三五)

一八九九年 五월에 편찬된 풍덕군의 읍지. 「光武三年五月日豐德郡邑誌」라는 內題가 보인다. 첫머리의 읍지도 뒤로 建置沿革 陵寢 墓所 麗朝陵寢 坊里 山川 道路 橋梁 堤堰 人物 忠臣 孝子 烈女 結摠戶摠軍兵 등의 항목이 수록되어 있다. 建置沿革에서 堤堰 항목까지는 一八七一年에 편찬된 『京畿邑誌』(奎一〇一七七) 제3책의 「豐德府邑誌」와 동일하다. 『京畿邑誌』本에서는 보이지 않던 人物 孝子 항목이 추가되어 있고, 烈女 항목의 경우는 수록된 인물들의 면면이 완전히 교체되어 있다. 結摠戶摠軍兵 항목은 비교적 상세한 편이다. 이들 항목들이 정확히 어느 시점의 사정을 반영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지만, 一八九四年 一〇월의 『경기각읍신정사례』 체제 이전의 형식이어서 결핵된 시점과 시간적 낙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凡例

- 一。 이 책은 서울大學校 奎章閣에 소장되어 있는 京畿道 邑誌 중에서 『驪州牧邑誌(奎一七三六八)』外 三二종의 책을 四·六배판 크기로 영인한 것이다.
- 二。 원본에는 목차가 없지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읍지의 각 항목별로 목차를 작성하여 앞 부분에 수록하였다.
- 三。 邑誌에 실려 있는 지도들은 사진 촬영 후 단색 분해하여 판형에 맞게 축소하였다. 원본의 규격은 지도 하단에 표시하였다.
- 四。 표지의 書名은 규장각 소장의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集字하였다.
- 五。 편집 및 목차 작성은 奎章閣 特別研究員 吳尙學이 담당하였다.